





곡성 관음사 동종과 광명대

주소 오산면 성덕관음길 453

전화 -

추천 1

이용시간 정보없음


휴무일 연중무휴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없음

장애인시설 없음

[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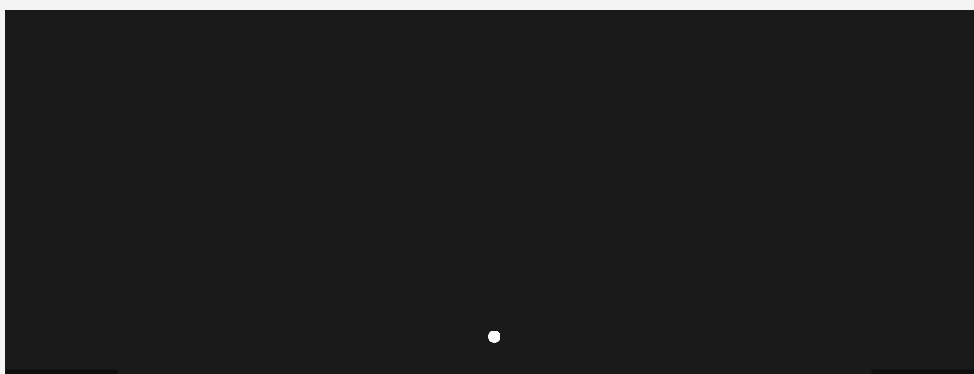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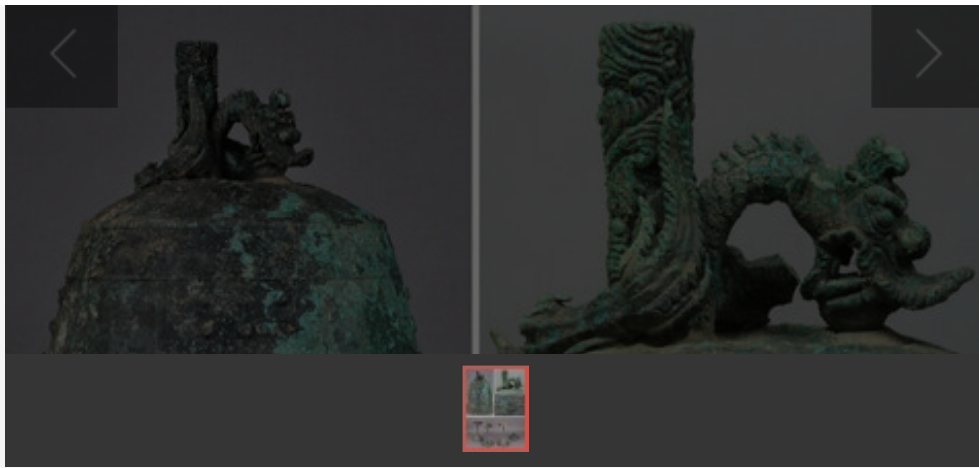
문화유산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규모
유형문화유산 352	2022. 3. 17.		

관음사 동종은 단룡의 용뉴와 음통을 갖추고 4방향의 연곽(蓮廓) 내에는 9개의 연꽃 봉우리, 2개소의 당좌가 표현된 전형적인 고려 시대 양식을 갖추었다. 비록 주종기는 없지만 원통전터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 출토지가 분명하고 함께 발굴된 광명대의 제작연대와 동종의 양식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1373년에 5중창 한 고려 시대 유구인 원통전과 주존불로 봉안된 고려 후기 양식인 금동관음보살상의 이전 시기인 4중창 원통전에서 사용된 고려 중기인 12~13세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관음사 광명대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광명대 가운데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가 분명하게 확보된 유물이다. 아울러 서귀포 법화사지 출토 청동 등잔 명문에 등장한 법화경 전에 올리기 위해 같은 모양 4개를 시주했다는 사례로 미루어 촛대나 광명대는 4개가 한 벌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벌인 등촉구 4개가 한꺼번에 출토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례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안상형 받침대 형식이나 중앙 마디를 중심으로 각각 한 개씩 3개의 마디의 간주, 마디 사이에 돌아가는 띠 모양은 반구형, 등좌 윗면으로 2조의 동심원이 돌아가는 등의 여러 특징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1373년에 5중창 한 고려 시대 유구인 원통전과 주존불로 봉안된 고려 후기 양식인 금동관음보살상의 이전 시기인 4중창 원통전에서 동종과 함께 사용된 고려 중기인 12~13세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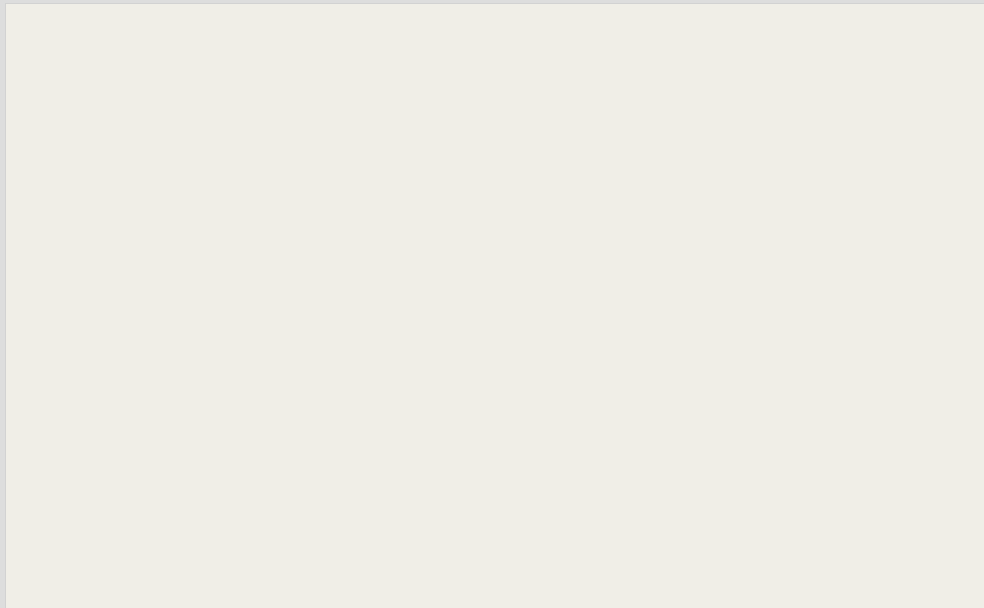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곡성 관음사 동종과 광명대


 오산면 성덕관음길 453

 정보없음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곡성 관음사 동종과 광명대 : 오산면 성덕관음길

 대중교통길찾기

453

목록으로

Web Contents

